5년 만의 은해사 조실…법타 스님 추대

은해사 2월 26일
조실추대 · 주지취임식 봉행

2016년 혜인 스님 입적 후
4년 8개월간의 공석 마감
법타 스님 "화합 위해 노력"
덕관 스님 "전법도행" 다짐


혜인 스님 입적 후 법타 스님 조실 추대로 승풍진작을 서원하는 은해사 대중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에 법타 스님이 추대됐다. 법타 스님의 조실 추대로 공석이 된 회주에는 돈명 스님이 추대됐다.

영천 은해사는 2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관 육화원에서 신임 주지 덕관 스님의 고불식과 함께 법타 스님의 조실 추대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최소규모로 봉행됐으며 회주 돈명 스님과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최기문 영천시장,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선화여고 교직원 등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신임 주지 덕관 스님의 고불문 낭독, 장학금전달식, 법타 스님의 법문, 최기문 영천시장의 축사 및 자비의 쌀 전달식 그리고 은해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은해사 조실은 지난 2016년 혜인 스님의 입적 후 4년 8개월간 공석이었다. 이날 새롭게 은해사 조실에 추대된 법타 스님은 법문에서 "중생은 미혹한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한마음을 깨달아 한없는 묘용을 일으키는 이는 모두가 부처님"이라며 "동곡당 일타 스님의 덕화와 가풍으로 더욱 수행 정진해 은해사본 말사 대중 스님의 신심 증장과 화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덕관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오늘 자비하신 불보살님께 산내 사부대중들로부터 도량장엄과 대중외호의 엄중한 소임을 위임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교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사뢴다"며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신심견고하고 전법 도행하는 하루를 열며 언제나 간경 구법하고 참회발원하며 하루를 닫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덕관 스님은 전임 주지 돈관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돈관 스님은 성보박물관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은해사는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자비의 나눔, 쌀 10kg 500포를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타 스님은 충북 청주 생으로 1965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제전에 참가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운동가로서 활동해 왔다. 현재 은해사 조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사)겨레살림공동체 공동대표, (사)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사)동행연우회 이사장, 동국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장 등을 맡고 있다.

돈관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해인사와 송광사, 금산사, 백양사, 공림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감사국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미륵세계사 주지, 묘광사와 불굴사, 보문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대강백 금명보정 선사를 기리며…

송광사 3월 2일 부도탑 제막식


송광사 대중들이 금명보정 선사 부도탑 제막을 진행하고 있다.

구한말 어려운 시절 수행자이자 시인, 대강백이었던 다송자 금명 보정(錦溟 寶鼎, 1861~1930) 선사의 부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자공)는 3월 2일 경내 부도전에서 금명 보정 선사의 열반 90주기를 맞아 부도탑 제막식을 갖고, 스님의 목우가풍 수행정신과 구한말 지식으로 살아온 삶을 조명했다.

행사에는 방장 현봉 스님, 자공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연 스님(해인사 다주), 허석 순천시장 등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역대조사 부도탑전 헌다에 이어 내빈소개, 경과보고, 제막식, 육법공양, 헌정식, 만인헌다, 방장스님 법문, 축시 및 축사 등이 이어졌다. 또 수좌 범종 스님(부휴문도) 인사에 이어 만인헌다례가 진행됐다. 〈솔바람 차 향기〉 저자 현봉 스님은 책 헌정을 통해 "이번에 부도탑을 조성하고 스님의 업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스님의 후손된 도리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늘은 제과기능사! 내일은 바리스타!'

사)착한벗들,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착한벗들의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

건강가정 다문화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이일수)은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제과기능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교육'을 2월 22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취득과 취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결혼이주여성 50명(바리스타 2급 30명, 제과기능사 20명)이 참가해 4월 말까지 바리스타과정, 6월 말까지 제과기능사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프로그램에는 관련 전문기관인 궁전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효자점(원장 김성신)과 아트갤러리 제과제빵학원(원장 김종현)이 참여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이해 수준을 감안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기관들은 자격증 취득 이후 인턴쉽 과정, 취업과 창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사)착한벗들 회일 스님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문기술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 제32기 졸업식 봉행

코로나 사태 속에도 졸업생 16명 배출



코로나 사태속에서도 배출된 16명의 졸업생들은 불법홍포를 서원했다.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가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금산사 주지)이 3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2월 27일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불교회관 총무 우림 스님, 정수사 주지 효진 스님, 김제 흥복사 주지 공해스님, 이근재 금산사 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김용주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졸업식은 개식선언,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 시상, 염송문, 청법가, 졸업식사, 졸업사, 축사, 발원문, 지도교수 선물증정, 사홍서원, 산회가, 폐회,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년간 학생회장으로 학인들을 이끌어온 윤현원 학인이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김해수, 김종대 학인이 이사장상을, 김경숙, 오정순 학인이 학장상을 수상했다. 일원 스님은 "화엄불교대학이 한국제일 불교대학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덕문 스님, 대통령 표창장 수상

3월 3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아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화엄사(주지 덕문 · 사진)는 지난 3월 3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본사 대강당에서 덕문 스님이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축하한다. 국립공원과 조계종간의 많은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말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종단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노력과 협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2대 이사장 진성 스님

3월 2일 취임…"자원봉사로 군민 행복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사진〉이 (사)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제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3월 2일 진안군전통문화전수관에서 이사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진성 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 봉사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 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더욱 정진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